

『黃帝內經·素問』에 수록된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 선별 연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학부¹
김진우¹ · 김태규¹ · 이주희¹ · 백진웅¹ *

A Study on the Selecting Indications of Five Viscera Source Point Acupuncture in *Suwen*(素問)

Kim Jin-Woo¹ · Kim Tag-Gyu¹ · Lee Jue-Hee¹ · Baek Jin-Ung¹ *
¹Div.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NU.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ort the five viscera symptoms which can be applied to Five Viscera Source Point Acupuncture, based on *Suwen*(素問).

Method : 1.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sentences from *Suwen*, which included the five viscera symptoms. And then we sorted the five viscera symptoms which can be applied to Five Viscera Source Point Acupuncture.

2. These words - 'Liver', 'Heart', 'Spleen', 'Lung', 'Kidney', 'Reverting yin(厥陰)', 'Lesser yin(少陰)', 'Greater yin(太陰)', 'First Yin', 'Second Yin', 'Third Yin', 'Pericardium' and 'Extreme yin' - were used as search terms.

Result & Conclusion : Forty-three symptoms of liver which can be applied to Five Viscera Source Point Acupuncture were extracted, twenty-one symptoms of heart, twenty-five symptoms of spleen, twenty-eight symptoms of lung, and forty symptoms of kidney.

Key Words : Source point, Five Viscera Source Point Acupuncture, *Suwen*(素問), Five viscera symptom.

I. 序 論

筆者는 體質鍼法임을 표방하며 五臟原穴 중 일부만을 치료혈로 사용하는 太極鍼法을 體質鍼法이 아

니라 五臟辨證鍼法으로 규정하고 五臟原穴 전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五臟原穴鍼法을 “『靈樞九鍼十二原篇』을 중심으로 한 太極鍼法 분석”¹⁾에서 제시하고, 그 후속 연구로 “太極鍼法の 확장형인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 연구(『黃帝內經 靈樞』를 중심으로)”²⁾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두 선행 연구

* 교신저자 : 백진웅.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학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E-mail : mukjagan@naver.com Tel : 051-510-8452
접수일(2013년 7월11일), 수정일(2013년 8월13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1) 임교민, 백진웅. 『靈樞 九鍼十二原篇』을 중심으로 한 太極鍼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2). 2012. pp.25-38.

의 후속 연구로서 『黃帝內經 素問』에서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을 선별함을 주제로 한 연구다. 『黃帝內經 靈樞』에서 적응증을 선별하는 연구를 먼저 수행한 까닭은 五臟原穴鍼法の 기원이 되는 「九鍼十二原篇」이 『黃帝內經 靈樞』에 있기 때문이었고, 지금 『黃帝內經 素問』에서도 적응증 선별 연구를 수행하고자하는 까닭은 『黃帝內經』 전체에서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을 선별해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이란 한 마디로 五臟病證이라 할 수 있고, 五臟病證은 韓方病理學 관련 서적 등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므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연구”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의도는 “현재까지의 新鍼療法은 대체로 창안자 개인의 임상 경험에 근거해 그 이론과 적응증이 제시되고 여기에 다른 임상자들의 임상 경험이 추가되면서 보완 및 확장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는데, 이와 달리 五臟原穴鍼法은 『黃帝內經』에 근거해 기본이론을 처음 제시하였기 때문에 적응증도 『黃帝內經』에만 근거해 제시함으로써 철저하게 『黃帝內經』에 근거한 新鍼療法 개발 사례 모형 및 『黃帝內經』의 임상적 활용 모형을 제시함”³⁾에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五臟原穴鍼法에 적용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五臟病證을 선별 및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비록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韓方病理學 관련 서적 등에 수록된 五臟病證과는 차이가 크므로 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정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 2) 모한영, 임교민, 백진웅. 太極鍼法の 확장형인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 연구(『黃帝內經 靈樞』를 중심으로).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5(4). 2012. pp.123-147.
- 3) 모한영, 임교민, 백진웅. 太極鍼法の 확장형인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 연구(『黃帝內經 靈樞』를 중심으로).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5(4). 2012. p.124.

1. 연구 방법과 내용⁴⁾

1) ‘肝’, ‘心’, ‘脾’, ‘肺’, ‘腎’, ‘厥陰’, ‘少陰’, ‘太陰’, ‘一陰’, ‘二陰’, ‘三陰’, ‘心包’, ‘心主’⁵⁾, ‘至陰’을 검색어로 하여 통용되는 『黃帝內經 素問』 한글 파일에서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문장을 선별하였다.

2) 선별한 문장을 세밀히 검토 및 분석한 후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肝病證, 心病證, 脾病證, 肺病證, 腎病證으로 최종 선별하였다.⁶⁾

이 때 예를 들어, “邪氣가 足少陰의 絡을 침범해 목구멍이 아프고 음식을 삼킬 수 없고 ~ 발바닥 중앙의 脈을 刺한다.”⁷⁾처럼 五臟病證 관련 문장은 맞지만 五臟原穴이 아닌 穴이 治療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少陰이 不足하면 肺痺를 앓는다.”⁸⁾처럼 원인이 되는 經絡과 질병이 발현되는 臟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 “陽明과 厥陰의 病으로 驚駭하고 背痛하고 트림과 하품을 잘 하는 風厥의 증상”⁹⁾처럼 手足經絡 중 어느 經絡의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臟의 原穴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급적 논란의 여지없이 특정 五臟原穴의 사용이 확실한 五臟病證만 선별

- 4)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인 “太極鍼法の 확장형인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 연구(『黃帝內經 靈樞』를 중심으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편의상 본 논문에도 기재한다.
- 5) 心包의 病證은 心病證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인 “太極鍼法の 확장형인 五臟原穴鍼法の 적응증 연구(『黃帝內經 靈樞』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길 바란다.
- 6) 五臟原穴鍼法이란 五臟의 原穴을 사용하는 침법으로 명칭 자체에 臟과 經絡 개념의 통합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五臟病證에는 기본적으로 經絡病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1.
“繆刺論篇 第六十三” 邪客於足少陰之絡, 令人噎痛, 不可內食 ~ 刺足下中央之脈.”
- 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4.
“四時刺逆從論篇 第六十四” 少陰 ~ 不足病肺痺.”
- 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66.
“陰陽別論篇 第七” 二陽一陰發病, 主驚駭, 背痛, 善噫, 善欠, 名曰風厥.”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3) ‘厥陰’, ‘少陰’, ‘太陰’, ‘一陰’, ‘二陰’, ‘三陰’, ‘至陰’을 검색어로 하여 발췌한 문장의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제하였고, 해당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手足經絡을 구분한 후 해당 臟에 배속하였다.

4) 선별한 문장은 아래의 5)번 항에 언급한 서적을 참고하여 정확성을 검토 및 수정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진주표가 編註한 『임상활용 황제내경 독송본』 10)에 수록된 『黃帝內經 素問』을 底本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上海中華書局에서 校刊한 ‘四部備要本’을 底本으로 하고 ‘四庫全書本’, 『黃帝內經章句索引』, 『黃帝內經素問校釋』을 對校本으로 삼아 원문을 정리하였기¹¹⁾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6) 原文은 脚註에 제시하고 본문에는 國譯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國譯은 原文의 문장 순서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맥이 가장 매끄럽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2.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五臟病證¹²⁾

앞서 언급한 연구 방법에 따라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五臟病證을 『素問』에서 최종 선별하고 그 결과를 肝病證, 心病證, 脾病證, 肺病證, 腎病證의 순서대로 정리하되 각각을 『素問』의 編制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1)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肝病證과 考察

問』의 肝(厥陰, 一陰)病證과 考察

(1)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肝(厥陰, 一陰)病證

① 「金匱真言論篇 第四」
驚駭가 발생하는 증상¹³⁾.

② 「五藏生成篇 第十」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目冥하고 耳聾하는 증상¹⁴⁾.

③ 「五藏生成篇 第十」
寒濕으로 인해 疝이 발생하는 것처럼 積氣가 心下와 脇部에 있어 얼굴색이 靑色을 띠고, 脈이 長하고 좌우의 脈이 모두 彈하고 腰痛과 足冷과 頭痛이 있는 肝痺의 증상¹⁵⁾.

④ 「診要經終論篇 第十六」
厥陰經의 氣가 끊어져 속에서 熱이 나고 목이 마르고 자주 오줌을 누고 心煩하고, 심하면 舌卷하고 舌卷이 위로 쭉그러들며 죽게 되는 증상¹⁶⁾

⑤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肝氣가 盛하여 분노하는 꿈을 꾸는 증상¹⁷⁾.

1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1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5.

12) 본 논문에서는 『靈樞 九鍼十二原篇』의 著者の 관점을 따라 六腑는 五臟에 포함된다고 보고 六腑病證은 선별하지 않았다. 『靈樞 九鍼十二原篇』에 따르면 五臟原穴을 이용해 表裏관계인 腑까지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五臟病證만을 선별했다. 하지만 臟證과 腑證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는 五臟原穴이 아니라 六腑原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3.

“「金匱真言論篇 第四」其病發驚駭.”

1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4.

“「五藏生成篇 第十」 徇蒙招尤, 目冥耳聾, 下實上虛, 過在足少陽厥陰, 甚則入肝.”

1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6.

“「五藏生成篇 第十」 青脈之至也, 長而左右彈, 有積氣在心下支肘, 名曰肝痺, 得之寒濕, 與疝同法, 腰痛足清頭痛.”

1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01.

“「診要經終論篇 第十六」 厥陰終者, 中熱噎乾, 善溺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

1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09.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肝氣盛則夢怒.”

⑥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넘어져 떨어지거나 혹은 부딪쳐서 瘀血이 가슴 아래에 쌓여 肝脈이 搏堅하면서 길고, 그 얼굴 색이 푸르지 않아 사람으로 하여금 喘逆하게 하는 증상, 혹은 肝脈이 軟弱하면서 흠어지고, 얼굴색에 윤기가 있으며 溢飲을 앓는 증상¹⁸⁾.

⑦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風寒이 肺에 있어 기침을 하고 上氣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지 않아 肺의 病氣가 곧바로 肝으로 傳해져서 脇痛하며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하는 肝痺 혹은 厥病의 증상¹⁹⁾.

⑧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높은 데서 떨어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肝의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喘이 발생하는 증상²⁰⁾.

⑨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빨리 달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肝의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汗出하는 증상²¹⁾.

⑩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眞氣가 허약하여 心이 아프면서 불편하고 厥氣가 머물러 정기와 부딪혀 汗이 나는 증상²²⁾.

⑪ 「熱論篇 第三十一」

傷寒 6일 째에 厥陰이 邪氣를 받아 ~ 煩滿하고 囊縮하는 증상²³⁾.

⑫ 「刺熱篇 第三十二」

肝熱病으로 우선 소변이 누르고, 腹痛이 있으며, 많이 누우려하고 몸에 열이 나는 증상²⁴⁾.

⑬ 「刺熱篇 第三十二」

肝熱病으로 왼쪽이 먼저 붉어지는 증상²⁵⁾.

⑭ 「刺瘡篇 第三十六」

足厥陰之瘡으로 腰痛하고 少腹滿하고 小便不利하여 마치 癰 증상인 것 같지만 癰은 아니고, 소변을 자주 보고, 두려움이 잘 생기고, 肝氣가 不足하여 배속이 불쾌한 증상²⁶⁾.

⑮ 「刺瘡篇 第三十六」

肝瘡으로 얼굴이 푸르고 자주 한숨을 쉬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증상²⁷⁾.

⑯ 「氣厥論篇 第三十七」

脾에 있던 寒邪가 肝으로 옮겨져 癰腫과 함께 筋脈에 경련이 발생하는 증상²⁸⁾.

1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10.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肝脈搏堅而長，色不青，當病墜若搏，因血在脅下，令人喘逆，其栗而散色澤者，當病溢飲。”

1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28.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弗治，肺即傳而行之肝，病名曰肝痺，一名曰厥，脇痛出食。”

2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43.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有所墮恐，喘出於肝。”

2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43.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疾走恐懼，汗出於肝。”

2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46.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眞虛憊心，厥氣留薄，發爲白汗。”

2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2.

“「熱論篇 第三十一」 六日，厥陰受之 ~ 故煩滿而囊縮。”

2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6.

“「刺熱篇 第三十二」 肝熱病者，小便先黃，腹痛多臥身熱。”

2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7.

“「刺熱篇 第三十二」 肝熱病者，左頰先赤。”

2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瘡篇 第三十六」 足厥陰之瘡，令人腰痛少腹滿，小便不利，如癰狀，非癰也，數便，意恐懼，氣不足，腹中悒悒。”

2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瘡篇 第三十六」 肝瘡者，令人色蒼蒼然，太息，其狀若死者。”

2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9.

“「氣厥論篇 第三十七」 脾移寒於肝，癰腫筋攣。”

⑰ 「氣厥論篇 第三十七」

脾에 있던 熱邪가 간으로 옮겨져 驚風과 鼻衄이 발생하는 증상²⁹⁾.

⑱ 「欬論篇 第三十八」

기침을 하면 兩脇下에 통증을 느끼는데, 심한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으며 움직이면 겨드랑이 밑이 그득해지는 肝效의 증상³⁰⁾.

⑲ 「欬論篇 第三十八」

肝效가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膽이 사기를 받는데, 이로 인해 기침과 함께 담즙을 토하는 膽效의 증상³¹⁾.

⑳ 「舉痛論篇 第三十九」

寒氣가 厥陰經에 침입하여 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經脈이 구급되는데, 이로 인해 옆구리와 소복이 당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³²⁾.

㉑ 「腹中論篇 第四十」

어린 시절에 크게 출혈한 병을 앓았거나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교함으로써 중초의 氣가 고갈되고 이로 인해 肝이 손상되어 월경이 적거나 오지 않게 되며 脇部가 그득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이 발생할 때 먼저 비릿한 냄새나 누린내가 나고 맑은 액이 나오는데 먼저 피 섞인 침을 뱉고, 四肢가 차고 눈이 어질하고 때때로 대소변에서 피가 나는 血

枯의 증상³³⁾.

㉒ 「風論篇 第四十二」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자주 슬피하고 얼굴은 약간 青色을 띠고 인후가 건조하고 쉽게 화를 내고 때때로 여자를 증오하고 진찰 시에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青色이 나타나는 肝風의 증상³⁴⁾.

㉓ 「痺論篇 第四十三」

밤에 자는 동안 잘 놀라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복부가 창만하여 마치 임신한 사람과 같은 肝痺의 증상³⁵⁾.

㉔ 「痺論篇 第四十三」

痺邪가 肝에 모여 陰血이 손상되고 기력이 없는 증상³⁶⁾.

㉕ 「痿論篇 第四十四」

肝氣熱로 膽汁이 배설되어 입안이 쓰고, 근막이 건조해지고, 근막이 건조해져서 筋이 拘急痙攣되는 筋痿의 증상³⁷⁾.

2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0.

“「氣厥論篇 第三十七」脾移熱於肝，則爲驚衄。”

3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3.

“「欬論篇 第三十八」肝效之狀，欬則兩脇下痛，甚則不可以轉，轉則兩脇下滿。”

3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4.

“「欬論篇 第三十八」肝效不已，則膽受之，膽效之狀，欬嘔膽汁。”

3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7.

“「舉痛論篇 第三十九」寒氣客於厥陰之脈，厥陰之脈者，絡陰器繫於肝，寒氣客於脈中，則血泣脈急，故脇肋與少腹相引痛矣。”

3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33.

“「腹中論篇 第四十」有病 脇支滿者 妨於食 病至則先聞腥臊臭 出清液 先唾血 四支清 目眩 時時前後血 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 病名血枯 此得之年少時，有所大脫血，若醉入房中，氣竭肝傷，故月事衰少不來也。”

3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3.

“「風論篇 第四十二」肝風之狀，多汗惡風，善悲，色微蒼，噓乾善怒，時憎女子，診在目下，其色青。”

3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6.

“「痺論篇 第四十三」肝痺者，夜臥則驚，多飲數小便，上爲引如懷。”

3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7.

“「痺論篇 第四十三」淫氣之竭，痺聚在肝。”

3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1.

“「痿論篇 第四十四」肝氣熱，則膽泄口苦，筋膜乾，筋膜乾則筋急而攣，發爲筋痿。”

㉞ 「痿論篇 第四十四」

간에서 발생하는 筋痿의 증상³⁸⁾.

㉟ 「痿論篇 第四十四」

肝熱로 얼굴색이 푸르고 손톱이 마르는 증상³⁹⁾.

㊱ 「厥論篇 第四十五」

厥陰의 氣가 厥逆하여 少腹이 腫痛하고 腹脹하고 소변이 不利하고 무릎을 구부린 채 눕기를 좋아하고 음낭이 오그라들거나 붓고 정강이 안쪽에 熱이 나는 증상⁴⁰⁾.

㊲ 「厥論篇 第四十五」

厥陰의 氣가 厥逆하여 경련과 腰痛이 생기고 虛滿하고 소변이 안 나오고 讖言하는 증상⁴¹⁾.

㊳ 「奇病論篇 第四十七」

자주 謀慮하지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해 膽이 虛해지고 氣가 위로 넘쳐나 이 때문에 입이 쓴 증상⁴²⁾.

㊴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腎肺脈이 모두 滿實하여 浮腫이 발생한 증상⁴³⁾.

㊵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脈이 小急하면서 癩癩하고 瘦癢하고 筋이 拘攣하는 증상⁴⁴⁾.

㊶ 「大奇論篇 第四十八」

腎脈과 肝脈이 함께 沈하면서 石水가 되고, 함께 浮하면서 風水가 되고, 함께 虛하면서 죽고, 함께 小弦하면서 놀람증이 되는 증상⁴⁵⁾.

㊷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脈이 小緩하면서 腸澼이 발생한 증상⁴⁶⁾.

㊸ 「大奇論篇 第四十八」

心肝의 腸澼으로 下血하는 증상⁴⁷⁾.

㊹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脈이 大急하고 沈하면서 ~ 발생하는 疝의 증상⁴⁸⁾.

㊺ 「脈解篇 第四十九」

厥陰經이 病이 들어 남자는 癩疝이 생기고 婦人은 少腹이 붓는 증상 ~ 腰脊이 아파서 구부리고 펴지 못하는 증상 ~ 性器가 부어 소변을 보지 못하고 피부가 붓는 증상 ~ 목이 건조하고 속에 熱이 나는 증상⁴⁹⁾.

3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2.

“「痿論篇 第四十四」 筋痿者, 生於肝使內也.”

3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3.

“「痿論篇 第四十四」 肝熱者色蒼而爪枯.”

4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9.

“「厥論篇 第四十五」 厥陰之厥, 則少腹腫痛, 腹脹溼澁不利, 好臥屈膝, 陰縮腫, 脣內熱.”

4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0.

“「厥論篇 第四十五」 厥陰厥逆, 攣腰痛, 虛滿前閉讖言.”

4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9.

“「奇病論篇 第四十七」 數謀慮不決, 故膽虛, 氣上溢, 而口爲之苦.”

4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1.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滿腎滿肺滿皆實, 卽爲腫.”

4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1.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脈小急, 癩癩筋攣.”

4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2.

“「大奇論篇 第四十八」 腎肝并沈爲石水, 并浮爲風水, 并虛爲死, 并小絃欲驚.”

4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2.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脈小緩爲腸澼.”

4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2.

“「大奇論篇 第四十八」 肝脈大急沈 ~ 爲疝.”

4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3.

“「大奇論篇 第四十八」 心肝澼亦下血.”

4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8.

“「脈解篇 第四十九」 厥陰所謂癩疝, 婦人少腹腫 ~ 腰脊痛不

③⑧ 「刺要論篇 第五十」

脈을 鍼刺할 때에는 筋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筋이 상하여 안으로 肝이 動하고, 肝이 動하여 봄에 열나면서 筋이 弛緩하는 증상⁵⁰).

③⑨ 「四時刺逆從論篇 第六十四」

厥陰의 脈이 有餘하면서 陰痺를 앓는 증상, 不足하면서 熱痺를 앓는 증상, 滑하면서 狐疝風을 앓는 증상, 瀦하면서 少腹에 積氣가 있는 증상⁵¹).

④⑩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肝病으로 먼저 머리나 눈이 어지러워지고, 옆구리가 답답하고 팽만해지는 증상⁵²).

④⑪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病的 根本이 肝에 있어 남자는 癰疽하고 부인은 少腹痛하며, 目昧, 眚瘍하고 瘡瘍瘰癧 등을 앓는 증상⁵³).

④⑫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驚駭하고 筋攣하는 증상⁵⁴).

④⑬ 「方盛衰論篇 第八十」

肝氣가 虛하여 꿈에 菌香(菌桂)과 生草를 보는 증상, 木이 旺盛한 계절은 만나 나무 밑에 엎드려 감

可以俛仰 ~ 癰癧疔膚脹 ~ 噓乾熱中.”

5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9.

“「刺要論篇 第五十」刺脈, 無傷筋, 筋傷則內動肝, 肝動則春病熱而筋弛.”

5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4.

“「四時刺逆從論篇 第六十四」厥陰有餘病陰痺, 不足病生熱痺, 滑則病狐疝風, 瀦則病少腹積氣.”

5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9.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肝病頭目眩, 脇支滿.”

5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42.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丈夫癰疽, 婦人少腹痛, 目昧眚, 瘡瘰癧 ~ 病本于肝.”

5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45.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驚駭筋攣.”

히 일어나지 못하는 꿈을 꾸는 증상⁵⁵).

(2) 考察

지금까지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肝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25個篇에서 43개를 선별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肝氣가 성하여 분노하는 증상”처럼 肝病證의 일반적 분류 기준에 부합돼 肝病證으로 쉽게 이해되는 증상도 있고, “厥陰經의 氣가 끊어져 속에서 熱이 나고 목이 마르고 자주 오줌을 누고 心煩하고, 심하면 舌卷하고 高환이 위로 쭉그러들며 죽게 되는 증상”처럼 언뜻 봐서는 肝病證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한 증상도 있다. 또 “驚駭가 발생하는 증상”처럼 단일 증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고 “肝熱病으로 우선 소변이 누르고, 腹痛이 있으며, 많이 누우려하고 몸에 열이 나는 증상”처럼 여러 증상이 모여 하나의 病證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病證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驚駭가 발생하는 증상”이나 “驚駭하고 筋攣하는 증상” 등의 몇몇 病證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용문 안에 ‘肝’, ‘厥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인용된 病證이 肝病證과 연관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肝病證과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는 ‘肝’, ‘厥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원문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단어를 포함시켜 인용하지 못했을 뿐으로 실제 원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관련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펴본 43개의 病證은 『黃帝內經 素問』에 근거한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肝病證으로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心(心包, 心主, 少陰, 二陰)病證과 考察

(1)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心(心包, 心主, 少陰, 二陰)病證

5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81.

“「方盛衰論篇 第八十」肝氣虛則夢見菌香生草, 得其時則夢伏樹下, 不敢起.”

① 「五藏生成篇 第十」

手巨陽과 手少陰의 이상으로 病이 隔中에 생겨 心煩하고 頭痛하는 증상⁵⁶⁾.

②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心脈이 搏堅하고 길면서 舌卷하고 不語한 증상, 心脈이 연약하고 흠어지면서 消渴이 되는 증상⁵⁷⁾.

③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놀라서 精이 소모되어 心의 이상으로 汗出하는 증상⁵⁸⁾.

④ 「刺熱篇 第三十二」

心熱病으로 먼저 기분이 즐겁지 않으면서 數日동안 熱이 나고, 熱이 심해지면서 卒心痛이 생기고 煩悶하고 구토가 자주 나오고 頭痛하고 面赤하고 無汗한 증상⁵⁹⁾.

⑤ 「刺熱篇 第三十二」

心熱病으로 얼굴 중의 이마가 먼저 붉어지는 증상⁶⁰⁾.

⑥ 「刺癰篇 第三十六」

心癰으로 가슴이 煩躁不安하며 갈증으로 찬물을 마시지만 반대로 寒이 심하고 熱은 심하지 않은 증상⁶¹⁾.

⑦ 「氣厥論篇 第三十七」

肝에 있던 寒邪가 心으로 옮겨가 정신착란과 함께 隔中이 발생하는 증상⁶²⁾.

⑧ 「效論篇 第三十八」

기침과 함께 心痛이 발생하고 喉中에 단단한 물질이 막혀 있는 듯하며 심한 경우 喉痺가 발생하는 心效의 증상⁶³⁾.

⑨ 「效論篇 第三十八」

心效가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小腸이 邪氣를 받는데, 기침과 함께 방귀가 나가거나 기침과 방귀가 동시에 발생하는 小腸效의 증상⁶⁴⁾.

⑩ 「舉痛論篇 第三十九」

寒氣가 背俞의 脈에 침입하여 血脈이 凝澁하고, 血脈이 凝澁하여 血이 虛해지며, 血이 虛해져 疼痛하는 증상⁶⁵⁾.

⑪ 「風論篇 第四十二」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입술과 혀가 바짝 타고 버럭 화를 잘 내며 얼굴이 붉어지고, 병이 위중할 경우에는 말을 잘 더듬거리며 진찰할 때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색이 나타나는 心風의 증상⁶⁶⁾.

5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4.

“「五藏生成篇 第十」 心煩頭痛, 病在隔中, 過在手巨陽少陰.”

5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10.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其栗而散者, 當消.”

5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43.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驚而奪精, 汗出於心.”

5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6.

“「刺熱篇 第三十二」 心熱病者, 先不樂, 數日乃熱. 熱爭則卒心痛, 煩悶善嘔, 頭痛面赤無汗.”

6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7.

“「刺熱篇 第三十二」 心熱病者, 顏先赤.”

6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癰篇 第三十六」 心癰者, 令人煩心甚, 欲得清水, 反寒多, 不甚熱.”

6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9.

“「氣厥論篇 第三十七」 肝移寒於心, 狂隔中.”

6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3.

“「效論篇 第三十八」 心效之狀, 效則心痛, 喉中介介如梗狀, 甚則咽腫喉痺.”

6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4.

“「效論篇 第三十八」 心效不已, 則小腸受之, 小腸效狀, 效而失氣, 氣與效俱失.”

6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7.

“「舉痛論篇 第三十九」 寒氣客於背俞之脈則脈泣, 脈泣則血虛, 血虛則痛.”

⑫ 「痺論篇 第四十三」

혈맥이 소통되지 않아 번조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하고, 갑자기 기가 치솟아 숨이 가빠 혈떡거리고 인후가 건조해지고 트림이 나고 氣가 상역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心痺의 증상⁶⁷⁾.

⑬ 「痺論篇 第四十三」

痺邪가 心에 모여 근심이 생기는 증상⁶⁸⁾.

⑭ 「痿論篇 第四十四」

心氣熱로 하부의 脈氣가 厥逆하여 거꾸로 치솟아 상행하므로 下部脈이 허해지고, 下部脈이 虛해져 脈痿가 발생하여 사지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고, 정강이에 힘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는 증상⁶⁹⁾.

⑮ 「痿論篇 第四十四」

心熱로 얼굴색이 붉으며 손락이 붓는 증상⁷⁰⁾.

⑯ 「厥論篇 第四十五」

手心主厥陰과 少陰이 厥逆하여 心痛하고 목구멍이 당기고 몸에 열이 나는 증상⁷¹⁾.

⑰ 「奇病論篇 第四十七」

놀란 뒤 心氣가 痿弱하여 죽는 증상⁷²⁾.

⑱ 「大奇論篇 第四十八」

心脈이 滿大하고 癰癥瘕(抽搦)하고 筋이 拘攣한 증상, 心脈이 細小하면서 急하고 손끝에 부딪혀 오지 않고 癢가 된 증상⁷³⁾.

⑲ 「大奇論篇 第四十八」

心肝의 腸澀으로 下血하는 증상⁷⁴⁾.

⑳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心病으로 먼저 心이 疼痛하는 증상⁷⁵⁾.

㉑ 「方盛衰論篇 第八十」

心氣가 虛하여 꿈에 火를 救하거나 陽物(龍)을 보는 꿈을 꾸는 증상, 火가 旺盛한 시기를 만나면 燔灼하는 꿈을 꾸는 증상⁷⁶⁾.

(2) 考察

지금까지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心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16個篇에서 21개를 선별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心熱病으로 얼굴 중의 이마가 먼저 붉어지는 증상”처럼 心病證의 일반적 분류 기준에 부합돼 心病證으로 쉽게 이해되는 증상도 있고,

6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3.

“「風論篇 第四十二」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嚇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 其色赤.”

6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6.

“「痺論篇 第四十三」 心痺者, 脈不通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 噓乾善噫, 厥氣上則恐.”

6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7.

“「痺論篇 第四十三」 淫氣憂思, 痺聚痺在心.”

6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1.

“「痿論篇 第四十四」 心氣熱, 則下脈厥而上, 上則下脈虛, 虛則生脈痿, 樞折挈, 脛縱而不任地也.”

7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3.

“「痿論篇 第四十四」 心熱者色赤而絡脈溢.”

7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0.

“「厥論篇 第四十五」 手心主少陰厥逆, 心痛引喉, 身熱.”

7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0.

“「奇病論篇 第四十七」 驚已, 心氣痿者死.”

7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1.

“「大奇論篇 第四十八」 心脈滿大, 癰癥筋攣 ~ 心脈小急, 不鼓皆爲癩.”

7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3.

“「大奇論篇 第四十八」 心肝澀下血.”

7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9.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夫病傳者, 心病先心痛, 一日而欬, 三日脇支痛, 五日閉塞不通, 身痛體重, 三日不已死. 冬夜半, 夏日中.”

7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81.

“「方盛衰論篇 第八十」 心氣虛則夢救火陽物, 得其時則夢燔灼.”

“心氣熱로 하부의 脈氣가 厥逆하여 거꾸로 치솟아 상행하므로 下部脈이 허해지고, 下部脈이 虛해져 脈痿가 발생하여 사지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고, 정강이에 힘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는 증상”처럼 언뜻 보서는 心病證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한 증상도 있다. 또 “心病으로 먼저 心이 疼痛하는 증상”처럼 단일 증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고 “혈맥이 소통되지 않아 번조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하고, 갑자기 기가 치솟아 숨이 가빠 헐떡거리고 인후가 건조해지고 트림이 나고 氣가 상역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心痺의 증상”처럼 여러 증상이 모여 하나의 病證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病證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寒氣가 背俞의 脈에 침입하여 血脈이 凝澁하고, 血脈이 凝澁하여 血이 虛해지며, 血이 虛해져 疼痛하는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용문 안에 ‘心’, ‘少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인용된 病證이 心病證과 연관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心病證과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는 ‘心’, ‘少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원문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단어를 포함시켜 인용하지 못했을 뿐으로 실제 원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관련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펴본 21개의 病證은 『黃帝內經 素問』에 근거한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心病證으로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3)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脾(太陰, 至陰, 三陰)病證과 考察

(1)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脾(太陰, 至陰, 三陰)病證

① 「五藏生成篇 第十」

足太陰脾와 陽明에 문제가 있어 腹滿하고 臍脹하고 흉격과 겨드랑이가 막히면서 걸리고 下厥上冒하는 증상⁷⁷⁾.

7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4.

“五藏生成篇 第十 腹滿臍脹, 支鬲脇脇, 下厥上冒, 過在足太陰陽明.”

② 「診要經終論篇 第十六」

太陰經의 기운이 끊어져서 배가 腹閉해지면서 숨을 쉬기 어렵고 트림과 구역질을 자주 하고, 구역질을 하면 氣가 逆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氣가 逆하지 않으면 위아래가 서로 通하지 않게 되어 얼굴이 검어지고 皮毛가 탄 것처럼 되면서 죽게 되는 증상⁷⁸⁾.

③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黃疸이 발생하고 뱃속에 열이 나고 心煩하고 누린 소변이 나오는 脾風의 증상⁷⁹⁾.

④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과로하여 脾의 이상으로 汗出하는 증상⁸⁰⁾.

⑤ 「熱論篇 第三十一」

腹滿하고 噤乾하는 傷寒 4일째의 증상⁸¹⁾.

⑥ 「刺熱篇 第三十二」

脾熱病으로 먼저 머리가 무겁고 頰痛이 있고 煩心하고 얼굴이 푸르고 구토할 것 같고 身熱이 있는데, 熱이 심해지면서 腰痛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펴지 못하고 腹滿하면서 설사하고 兩頰이 아픈 증상⁸²⁾.

⑦ 「刺熱篇 第三十二」

7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01.

“診要經終論篇 第十六 太陰終者, 腹閉閉不得息, 善噫善嘔, 嘔則逆, 逆則面赤, 不逆則上下不通, 不通則面黑, 皮毛焦而終矣.”

7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28.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弗治, 肝傳之脾, 病名曰脾風, 發瘧, 腹中熱, 煩心, 出黃.”

8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43.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搖體勞苦, 汗出於脾.”

8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2.

“熱論篇 第三十一 四日, 太陰受之 ~ 故腹滿而噤乾.”

8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6.

“刺熱篇 第三十二 脾熱病者, 先頭重頰痛, 煩心顏青, 欲嘔身熱, 熱爭則腰痛不可用俯仰, 腹滿泄, 兩頰痛.”

脾에 熱病이 생겨 코가 먼저 붉어진 증상⁸³⁾.

⑧ 「刺瘡篇 第三十六」

足太陰之瘡으로 사람의 기분이 즐겁지 않고 한숨을 자주 쉬고 먹기를 좋아하지 않고 惡寒 發熱과 汗出이 많고, 발작할 대면 잘 구토하고, 구토를 하고 나면 나아지는 증상⁸⁴⁾.

⑨ 「刺瘡篇 第三十六」

온몸이 차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날 때에는 腸鳴을 수반하고 腸鳴 후에는 땀이 나는 脾瘧의 증상⁸⁵⁾.

⑩ 「氣厥論篇 第三十七」

腎에 있던 寒邪가 脾로 옮겨가 癰腫이 발생하여 氣가 부족해지는 증상⁸⁶⁾.

⑪ 「氣厥論篇 第三十七」

腎에 있던 熱邪가 脾로 옮겨가서 虛證이 되어 腸澀으로 인해 죽는 증상⁸⁷⁾.

⑫ 「效論篇 第三十八」

기침과 함께 우측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은근하게 어깨가 당기고, 심한 경우 활동할 수도 없고, 활동을 하면 效嗽가 더 극열해지는 脾效의 증상⁸⁸⁾.

⑬ 「風論篇 第四十二」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고 몸이 권태로워 사지를 움직이기 싫어하고 얼굴은 황색이고 식욕이 없으며 진찰 시에 콧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색이 나타나는 脾風의 증상⁸⁹⁾.

⑭ 「痺論篇 第四十三」

사지가 권태롭고 무기력하며 기침을 하고 묽은 물을 뱉어 내고, 상부의 흉격이 막혀 소통되지 않는 脾痺의 증상⁹⁰⁾.

⑮ 「痺論篇 第四十三」

痺邪가 脾에 모여 몸이 여위는 증상⁹¹⁾.

⑯ 「痿論篇 第四十四」

脾氣熱로 胃가 건조해져 갈증이 나고 肌肉을 자양하지 못하여 마비되어 늘어지는 肉痿의 증상⁹²⁾.

⑰ 「痿論篇 第四十四」

脾에 열이 있어 얼굴색이 누렇고 肌肉이 떨리는 증상⁹³⁾.

⑱ 「厥論篇 第四十五」

太陰의 氣가 厥逆해 腹滿하면서 腹脹하고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

8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7.

“「刺熱篇 第三十二」脾熱病者, 鼻先赤.”

8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瘡篇 第三十六」足太陰之瘡, 令人不樂, 好大息, 不嗜食, 多寒熱汗出, 病至則善嘔, 嘔已乃衰.”

8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瘡篇 第三十六」脾瘧者, 令人寒, 腹中痛. 熱則腸中鳴, 鳴已汗出, 刺足太陰.”

8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9.

“「氣厥論篇 第三十七」腎移寒於脾, 癰腫少氣.”

8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0.

“「氣厥論篇 第三十七」腎移熱於脾, 傳爲虛, 腸澀死, 不可治.”

8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3.

“「效論篇 第三十八」脾效之狀, 效則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效劇.”

8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3.

“「風論篇 第四十二」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9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6.

“「痺論篇 第四十三」脾痺者, 四肢解墮, 發咳嘔汁, 上爲大寒.”

9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7.

“「痺論篇 第四十三」淫氣肌絕, 痺聚在脾.”

9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1.

“「痿論篇 第四十四」脾氣熱, 則胃乾而渴, 肌肉不仁, 發爲肉痿.”

9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3.

“「痿論篇 第四十四」脾熱者色黃而肉蠕動.”

으면 구토하고 잘 자지 못하는 증상⁹⁴⁾.

① 「厥論篇 第四十五」

足太陰의 氣가 厥逆해 정강이가 갑자기 경련하고
心痛하면서 배가 당기는 증상⁹⁵⁾.

② 「奇病論篇 第四十七」

입에서 단맛이 나는 증상⁹⁶⁾.

③ 「大奇論篇 第四十八」

脾脈이 外鼓沈하면서 腸澀이 발생한 증상⁹⁷⁾.

④ 「脈解篇 第四十九」

太陰經이 病이 들어 脹한 증상 ~ 위로 心으로 달
려가 트림하는 증상 ~ 먹으면 구토하는 증상 ~ 대
변을 보고 방귀를 끼면 병이 쇠해진 것처럼 상쾌해
지는 증상⁹⁸⁾.

⑤ 「四時刺逆從論篇 第六十四」

太陰의 脈이 有餘하면서 肉痺와 寒中을 앓는 증
상, 부족하면서 脾痺를 앓는 증상, 太陰脈이 滯하면
서 脾風疝을 앓는 증상, 澀하면서 積聚가 생기고 心
腹이 때때로 脹滿하는 증상⁹⁹⁾.

⑥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脾에 병이 있어 먼저 신체가 아프고 무지근하며
나른해지는 증상¹⁰⁰⁾.

⑦ 「方盛衰論篇 第八十」

脾氣가 虛하여 飲食이 不足한 꿈을 꾸는 증상,
土가 旺盛한 계절을 만나 담을 쌓고 지분을 엷는 일
을 하는 꿈을 꾸는 증상¹⁰¹⁾.

(2) 考察

지금까지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脾病證
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19個篇에서 25개를 선별해
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脾에 열이 있어 얼굴색이 누렇고
肌肉이 떨리는 증상”처럼 脾病證의 일반적 분류 기
준에 부합돼 脾病證으로 쉽게 이해되는 증상도 있
고, “太陰經의 기운이 끊어져서 배가 脹閉해지면서
숨을 쉬기 어렵고 트림과 구역질을 자주 하고, 구역
질을 하면 氣가 逆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氣가 逆하
지 않으면 위아래가 서로 通하지 않게 되어 얼굴이
검어지고 皮毛가 탄 것처럼 되면서 죽게 되는 증상”
처럼 언뜻 봐서는 脾病證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
한 증상도 있다. 또 “脾에 熱病이 생겨 코가 먼저
붉어진 증상”처럼 단일 증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
고 “太陰의 氣가 厥逆해 腹滿하면서 脹脹하고 대변
을 잘 보지 못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구토하고 잘 자지 못하는 증상”처럼 여러 증
상이 모여 하나의 病證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따
라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病證을 분류하기
는 어렵다. 하지만 “腹滿하고 噎乾하는 傷寒 4일째
의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용문 안에 ‘脾’, ‘太
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인용된 病證이 脾病
證과 연관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脾病證과

9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259.

“「厥論篇 第四十五」太陰之厥, 則腹滿脹後不利不欲食, 食
則嘔不得臥.”

9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259.

“「厥論篇 第四十五」太陰厥逆, 筋急攣, 心痛引腹.”

9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268.

“「奇病論篇 第四十七」脾痺 ~ 故令人口甘.”

9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272.

“「大奇論篇 第四十八」脾脈外鼓沈爲腸澀.”

9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277.

“「脈解篇 第四十九」太陰所謂脾脹 ~ 上走心爲噫 ~ 食則嘔
~ 得後與氣, 則快然如衰.”

9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334.

“「四時刺逆從論篇 第六十四」太陰有餘病肉痺寒中, 不足病脾
痺, 滯則病脾風疝, 澀則病積, 心腹時滿.”

10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339.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脾病身痛體重.”

10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
울. 2009. p.481.

“「方盛衰論篇 第八十」脾氣虛則夢飲食不足, 得其時則夢築垣
蓋屋.”

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는 ‘脾’, ‘太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원문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단어를 포함시켜 인용하지 못했을 뿐으로 실제 원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관련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펴본 25개의 病證은 『黃帝內經 素問』에 근거한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脾病證으로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4)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肺(太陰, 三陰)病證과 考察

(1)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肺(太陰, 三陰)病證

① 「五藏生成篇 第十」

手陽明과 手太陰의 문제로 胸中에 厥氣가 있어 咳嗽하고 上氣하는 증상¹⁰²⁾.

②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肺氣가 盛하여 우는 꿈을 꾸는 증상¹⁰³⁾.

③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肺脈이 搏堅하면서 길고 唾血하는 증상, 肺脈이 軟弱하면서 흠어지고 衄이 마치 물을 대는 것처럼 많이 나오는 증상¹⁰⁴⁾.

④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肺痺라고 하는데, 欬嗽와 上氣 증상이 발생하는 증상¹⁰⁵⁾.

⑤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肺에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喘이 발생하는 증상¹⁰⁶⁾.

⑥ 「刺熱篇 第三十二」

肺熱病으로 먼저 으슬으슬 춥고 손발이 차가워져 습달이 일어나고 風寒을 싫어하고 헛바닥 위가 누르고 몸에 열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喘欬하고 疼痛이 胸·膺·背로 퍼지며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頭痛이 심하고 衄이 나면서 추워하는 증상¹⁰⁷⁾.

⑦ 「刺熱篇 第三十二」

肺熱病으로 오른뺨이 먼저 붉어지는 증상¹⁰⁸⁾.

⑧ 「逆調論篇 第三十四」

肺의 絡脈의 氣가 정상 상태를 잃어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 없지만 숨 설 때 소리가 나는 증상¹⁰⁹⁾.

⑨ 「刺瘡篇 第三十六」

肺瘡으로 心寒해지고, 寒이 심하여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여 마치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잘 두려워하는 증상¹¹⁰⁾.

⑩ 「氣厥論篇 第三十七」

名曰肺痺, 發欬上氣.”

10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43.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有所驚恐, 喘出於肺.”

10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6.

“刺熱篇 第三十二 肺熱病者, 先漸然厥, 起毫毛惡風寒, 舌上黃身熱, 熱爭則喘欬, 痛走膺背, 不得大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10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97.

“刺熱篇 第三十二 肺熱病者, 右頰先赤.”

10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06.

“逆調論篇 第三十四 夫起居如故而息有音者, 此肺之絡脈逆也.”

11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瘡篇 第三十六 肺瘡者, 令人心寒, 寒甚熱, 熱間善驚如有所見.”

10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4.

“五藏生成篇 第十 欬嗽上氣, 厥在胸中, 過在手陽明太陰.”

10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09.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肺氣盛則夢哭.”

10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10.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栗而散者, 當病灌汗.”

10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27.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今風寒客於人 ~ 弗治, 病入舍於肺,

물을 한잔 마시면 그 두 배를 배설하는 肺消의 증상¹¹¹⁾.

⑪ 「氣厥論篇 第三十七」

心に 있던 熱邪가 肺로 옮겨져 발생한 鬲消의 증상¹¹²⁾.

⑫ 「欬論篇 第三十八」

기침과 함께 喘息音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기침할 때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肺欬의 증상¹¹³⁾.

⑬ 「欬論篇 第三十八」

涕唾를 많이 흘리고 얼굴이 浮腫하고 氣가 逆하는 증상¹¹⁴⁾.

⑭ 「風論篇 第四十二」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고 얼굴이 백색이고 수시로 기침을 하며 숨이 가쁜데 낮에는 좀 낫고 밤에 심해지고, 진찰 시에 미간의 상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백색이 나타나는 肺風의 증상¹¹⁵⁾.

⑮ 「痺論篇 第四十三」

가슴이 번만하고 氣가 치솟아 숨이 가쁘며 구토가 발생하는 肺痺의 증상¹¹⁶⁾.

⑯ 「痺論篇 第四十三」

痺邪가 肺에 모여 喘息이 나타나는 증상¹¹⁷⁾.

⑰ 「痿論篇 第四十四」

肺葉이 건조해져 皮毛가 허약해지고 다리를 저는 증상¹¹⁸⁾.

⑱ 「痿論篇 第四十四」

肺에 열이 있어 얼굴색이 희며 모발이 거칠어지는 증상¹¹⁹⁾.

⑲ 「痿論篇 第四十四」

肺熱로 肺葉이 타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痿躄 증상¹²⁰⁾.

⑳ 「厥論篇 第四十五」

手太陰의 氣가 厥逆해 虛滿하면서 기침하고 거품 섞인 침을 잘 뱉는 증상¹²¹⁾.

㉑ 「病能論篇 第四十六」

肺氣가 盛해 脈이 大하고, 脈이 大하면서 바로 누울 수 없는 증상¹²²⁾.

㉒ 「病能論篇 第四十六」

逆함이 왼쪽에 있으면 주된 병은 腎에 있으면서

11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9.

“氣厥論篇 第三十七 肺消者飲一澠二，死不治。”

11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0.

“氣厥論篇 第三十七 心移熱於肺，傳爲鬲消。”

11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3.

“欬論篇 第三十八 肺欬之狀，欬而喘息有音，甚則唾血。”

11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3.

“欬論篇 第三十八 使人多涕唾而面浮腫氣逆也。”

11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3.

“風論篇 第四十二 岐伯曰 肺風之狀，多汗惡風，色皴然白，時欬短氣，晝日則差，暮則甚，診在眉上，其色白。”

11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6.

“痺論篇 第四十三 肺痺者，煩滿喘而嘔。”

11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7.

“痺論篇 第四十三 淫氣喘息，痺聚在肺。”

11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2

“痿論篇 第四十四 故肺熱葉焦，則皮毛虛弱，急薄著則生痿躄也。”

11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3.

“痿論篇 第四十四 肺熱者色白而毛敗。”

12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2.

“痿論篇 第四十四 因肺熱葉焦，發爲痿躄。”

12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0.

“厥論篇 第四十五 手太陰厥逆，虛滿而欬，善嘔沫。”

12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2.

“病能論篇 第四十六 肺氣盛則脈大，脈大則不得偃臥。”

肺와도 관련 있는데, 이로 인한 腰痛 증상¹²³⁾.

㉓ 「大奇論篇 第四十八」.

肺氣가 壅滯하여 喘息하면서 양 겨드랑이가 그득한 증상¹²⁴⁾.

㉔ 「水熱穴論篇 第六十一」

肺氣가 逆하여 눕지 못하는 증상¹²⁵⁾.

㉕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肺病으로 기침하는 증상¹²⁶⁾.

㉖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병이 심해져 肺에 들어가 欬하며 鼻淵하는 증상¹²⁷⁾.

㉗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병이 심해져 肺에 들어가 欬하며 血泄하는 증상¹²⁸⁾.

㉘ 「方盛衰論篇 第八十」

肺氣가 虛하여 白物을 보거나 사람이 베어져 피가 낭장한 꿈을 꾸는 증상, 肺氣가 왕성한 계절이면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 꿈을 꾸는 증상¹²⁹⁾.

12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2.

“病能論篇 第四十六 在左當主病在腎，頗關在肺，當腰痛也。”

12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1.

“大奇論篇 第四十八 肺之雍，喘而兩脇滿。”

12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13.

“水熱穴論篇 第六十一 肺爲逆不得臥。”

12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9.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肺病喘欬。”

12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47.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入肺，欬而鼻淵。”

12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50.

“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甚則入肺，欬而血泄 尺澤絕，死不治。”

(2) 考察

지금까지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肺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20個篇에서 28개를 선별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침과 함께 喘息음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기침할 때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肺效의 증상”처럼 肺病證의 일반적 분류 기준에 부합해 肺病證으로 쉽게 이해되는 증상도 있고, “물을 한잔 마시면 그 두 배를 배설하는 肺消의 증상”처럼 언뜻 보서는 肺病證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증상도 있다. 또 “肺熱病으로 오른뺨이 먼저 붉어지는 증상”처럼 단일 증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고 “肺熱病으로 먼저 으슬으슬 춥고 손발이 차가워져 숨털이 일어나고 風寒을 싫어하고 헛바닥 위가 누르고 몸에 열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喘效하고 疼痛이 胸·膈·背로 퍼지며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頭痛이 심하고 땀이 나면서 추워하는 증상”처럼 여러 증상이 모여 하나의 病證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病證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涕唾를 많이 흘리고 얼굴이 浮腫하고 氣가 逆하는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용문 안에 ‘肺’, ‘太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인용된 病證이 肺病證과 연관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肺病證과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는 ‘肺’, ‘太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원문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단어를 포함시켜 인용하지 못했을 뿐으로 실제 원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관련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펴본 28개의 病證은 『黃帝內經 素問』에 근거한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肺病證으로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5)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腎(少陰, 二陰)病證과 考察

(1)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黃帝內經 素問』의 腎(少陰, 二陰)病證과 考察

12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81.

“方盛衰論篇 第八十 是以肺氣虛則使人夢見白物，見人斬血藉藉，得其時則夢見兵戰。”

問』의 腎(少陰, 二陰)病證

① 「生氣通天論篇 第三」

무리하게 힘을 써서 腎氣가 손상되어 高骨이 파괴되는 증상¹³⁰⁾.

② 「五藏生成篇 第十」

足少陰腎과 巨陽膀胱의 문제로 아래가 虛하고 위가 實해져 頭痛과 巔疾이 일어나는 증상¹³¹⁾.

③ 「五藏生成篇 第十」

腎脈의 上堅而大하면서 積氣가 小腹과 陰器에 있는 腎痺의 증상¹³²⁾.

④ 「診要經終論篇 第十六」

少陰經의 氣가 끊어져 面黑하고 잇몸이 벗겨져 이빨이 길어지면서 때가 끼고, 배가 脹閉하여 上下가 不通하면서 죽는 증상¹³³⁾.

⑤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腎이 장차 약해지려는 징조로 腎의 府인 腰를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증상¹³⁴⁾.

⑥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밤에 많이 활동해 腎의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喘하는 증상¹³⁵⁾.

⑦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무거운 것을 들고 먼 길을 가면 腎의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汗出하는 증상¹³⁶⁾.

⑧ 「熱論篇 第三十一」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나는 傷寒 5일째의 증상¹³⁷⁾.

⑨ 「刺熱篇 第三十二」

腎熱病으로 먼저 허리가 아프고 정강이가 시큰거리며 갈증에 시달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몸에 열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목이 아프면서 뻣뻣해지고, 정강이가 차고 시큰거리고, 발바닥 아래가 열나고 말도 하기 싫어하고, 그 氣가 逆하여 목이 아프고 머리가 빙빙 돌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증상¹³⁸⁾.

⑩ 「刺熱篇 第三十二」

腎熱病으로 턱이 먼저 붉어지는 증상¹³⁹⁾.

⑪ 「評熱病論篇 第三十三」

腎風病으로 얼굴이 부어 오르고 말하기가 힘든 증상¹⁴⁰⁾.

⑫ 「刺癰篇 第三十六」

울. 2009. p.143.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夜行則喘出於腎.”

13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6.

“「生氣通天論篇 第三」 因而強力, 腎氣乃傷, 高骨乃壞.”

13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4.

“「五藏生成篇 第十」 是以頭痛巔疾, 下虛上實, 過在足少陰巨陽, 甚則入腎.”

13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86.

“「五藏生成篇 第十」 黑脈之至也, 上堅而大, 有積氣在小腹與陰, 名曰腎痺.”

13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01.

“「診要經終論篇 第十六」 少陰終者, 面黑, 齒長而垢, 腹脹閉, 上下不通而終矣.”

13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106.

“「脈要精微論篇 第十七」 腰者,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

13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01.

“「評熱病論篇 第三十三」 有腎腎風者, 面附羸然壅, 害於言.”

足少陰之瘧으로 嘔吐가甚하고 惡寒發熱이 많되 熱이 많고 惡寒은 적으며, 문과 창을 닫고 조용히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증상¹⁴¹⁾.

⑬ 「刺瘧篇 第三十六」

腎瘧으로 온몸에 찬물을 뿌린 듯 심한 惡寒을 느끼고 腰脊部의 통증으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대변이 순조롭지 않고 눈앞이 어질하고, 수족이 싸늘한 증상¹⁴²⁾.

⑭ 「氣厥論篇 第三十七」

肺에 있던 寒邪가 腎으로 옮겨가 형성된 涌水 증상¹⁴³⁾.

⑮ 「氣厥論篇 第三十七」

肺에 있던 熱邪가 腎으로 옮겨가 형성된 柔瘧 증상¹⁴⁴⁾.

⑯ 「效論篇 第三十八」

기침과 함께 腰背가 당기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기침과 함께 담연을 토하는 腎效의 증상¹⁴⁵⁾.

⑰ 「風論篇 第四十二」

땀을 많이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고 얼굴에 부종

이 발생하고 腰脊의 통증으로 인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얼굴은 어두운 회색이며 소변이 순조롭지 못하고, 진찰할 때 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흑색이 나타나는 腎風의 증상¹⁴⁶⁾.

⑱ 「痺論篇 第四十三」

복부가 잘 창만하고 제대로 서지를 못해 꼬리뼈로 발을 대신하고, 허리가 구부러져 척추보다 머리가 높은 腎痺의 증상¹⁴⁷⁾.

⑲ 「痺論篇 第四十三」

痺邪가 腎에 모여 있어 遺尿症이 발생하는 증상¹⁴⁸⁾.

⑳ 「痿論篇 第四十四」

腎氣熱로 腰脊部를 펴거나 구부리지 못하고 골수가 점차적으로 고갈되어 발생하는 骨痿의 증상¹⁴⁹⁾.

㉑ 「痿論篇 第四十四」

腎熱로 얼굴색이 검고 치아가 메마르는 증상¹⁵⁰⁾.

㉒ 「痿論篇 第四十四」

水가 火를 이기지 못하면 骨이 마르고 髓가 虛해져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骨痿의 증상¹⁵¹⁾.

14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6.

“「刺瘧篇 第三十六」 足少陰之瘧，令人嘔吐甚，多寒熱，熱多寒少，欲閉戶牖而處，其病難已。”

14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7.

“「刺瘧篇 第三十六」 腎瘧者，令人洒淅惡寒，腰痛宛轉，大便難，目胸胸然，手足寒。”

14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9.

“「氣厥論篇 第三十七」 肺移寒於腎，爲涌水。”

14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19.

“「氣厥論篇 第三十七」 肺移熱於腎，傳爲柔瘧。”

14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23.

“「效論篇 第三十八」 腎效之狀，效則腰背相引而痛，甚則效涎。”

14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3.

“「風論篇 第四十二」 腎風之狀，多汗惡風，面癢然浮腫，脊痛不能正立，其色晄，隱曲不利，診在肌上，其色黑。”

14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6.

“「痺論篇 第四十三」 腎痺者，善眠，尻以代踵，脊以代頭。”

14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47.

“「痺論篇 第四十三」 淫氣遺溺，痺聚在腎。”

14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1.

“「痿論篇 第四十四」 腎氣熱，則腰脊不舉，骨枯而髓減，發爲骨痿。”

15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3.

“「痿論篇 第四十四」 腎熱者色黑而齒槁。”

15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3.

㉒ 「厥論篇 第四十五」
少陰의 氣가 厥逆해 口乾하고 溺赤하고 腹滿하고 心痛한 증상¹⁵²).

㉓ 「厥論篇 第四十五」
酒氣가 성하면서 날래고 사나워 腎氣가 날로 쇠약해지고 陽氣만 홀로 성하여 수족에 열이 나는 증상¹⁵³).

㉔ 「厥論篇 第四十五」
少陰의 氣가 厥逆하여 虛滿하고 어느 정도 소화된 음식을 구토하고 푸른 색 설사를 하는 증상¹⁵⁴).

㉕ 「病能論篇 第四十六」
逆함이 왼쪽에 있으면 주된 병은 腎에 있으면서 肺와도 관련 있는데, 이로 인한 腰痛 증상¹⁵⁵).

㉖ 「病能論篇 第四十六」
腰痛의 증상¹⁵⁶).

㉗ 「奇病論篇 第四十七」
少陰腎의 脈은 腎을 관통하여 허뿌리에 이어지는 데, (이곳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말할 수 없는 증상¹⁵⁷).

“「痿論篇 第四十四」腎者水藏也，今水不勝火，則骨枯而髓虛，故足不任身，發爲骨痿。”

15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9.

“「厥論篇 第四十五」少陰之厥，則口乾溺赤，腹滿心痛。”
15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7.

“「厥論篇 第四十五」夫酒氣盛而慄悍，腎氣有衰，陽氣獨勝，故手足爲之熱也。”

15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59.

“「厥論篇 第四十五」少陰厥逆，虛滿嘔變，下泄清。”
15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2.

“「病能論篇 第四十六」在左當主病在腎，頗關在肺，當腰痛也。”

15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62.

“「病能論篇 第四十六」腎爲腰痛之病也。”
15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㉘ 「大奇論篇 第四十八」
腎氣가 壅滯하여 다리 아래로부터 少腹에 이르기까지 그득하고 정강이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며, 허벅다리와 정강이를 많이 질러가려 걷지 못하며 偏枯하는 증상¹⁵⁸).

㉙ 「大奇論篇 第四十八」
腎脈과 肝脈이 함께 沈하면서 石水가 되고, 함께 浮하면서 風水가 되고, 함께 虛하면서 죽고, 함께 小弦하면서 놀람증이 되는 증상¹⁵⁹).

㉚ 「大奇論篇 第四十八」
腎脈이 大急하고 沈하면서 ~ 발생하는 疝의 증상¹⁶⁰).

㉛ 「大奇論篇 第四十八」
腎脈이 小하고 搏擊하고 沈하면서 腸澼으로 下血하는 증상¹⁶¹).

㉜ 「大奇論篇 第四十八」
寒熱이 오직 腎에 머물러 앉지 못하는 증상¹⁶²).

㉝ 「脈解篇 第四十九」
腎이 虛하여 精氣가 소모되고 厥하여 말을 못하고 四肢가 마비되는 증상¹⁶³).

울. 2009. p.266.

“「奇病論篇 第四十七」少陰之脈，貫腎繫舌本，故不能言。”

15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1.

“「大奇論篇 第四十八」腎壅，脚下至少腹滿，脛有大小，髀節大跛，易偏枯。”

15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2.

“「大奇論篇 第四十八」腎肝并沈爲石水，并浮爲風水，并虛爲死，并小絃欲驚。”

160)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2.

“「大奇論篇 第四十八」腎脈大急沈 ~ 爲疝。”

16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3.

“「大奇論篇 第四十八」腎脈小搏沈，爲腸澼下血。”

162)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4.

“「大奇論篇 第四十八」寒熱獨并於腎也，如此其人不得坐。”

㉕ 「脈解篇 第四十九」

少陰經이 病이 들어 腰痛이 생긴 증상 ~ 구토하고 기침하고 上氣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증상 ~ 불편해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눈 앞이 아찔해 보이는 것이 없는 증상 ~ 少氣하고 善怒하는 증상 ~ 누군가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두려운 증상 ~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은 증상 ~ 얼굴색이 땅처럼 거름 증상 ~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는 증상¹⁶⁴).

㉖ 「刺要論篇 第五十」

腎氣가 動해 겨울에 脹滿하고 腰痛하는 증상¹⁶⁵).

㉗ 「水熱穴論篇 第六十一」

入房을 무리하게 해서 腎汗이 나온 상태에서 바람을 만나면 腎汗이 안으로는 臟腑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는 皮膚로 泄越하지 못하여 支府에 머무르게 되고, 皮裏로 움직여 결국 傳變하여 附腫이 되는 증상¹⁶⁶).

㉘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腎病으로 먼저 하복부나 腰背가 아프고 종아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¹⁶⁷).

㉙ 「著至教論篇 第七十五」

腎이 장차 끊어지려 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불안해하고 조용히 지내려 하고, 밖으로 나가 활동하려 하지 아니하고 일을 부지런히 처리하려 하지 않는 증상¹⁶⁸).

㉚ 「方盛衰論篇 第八十」

腎氣가 虛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는 꿈을 꾸는 증상, 腎氣가 왕성한 시기를 만나 水中에 엎드려 숨이 두려워하는 듯한 꿈을 꾸는 증상¹⁶⁹).

(2) 考察

지금까지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肺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24個篇에서 40개를 선별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腎이 장차 약해지려는 징조로 腎의 府인 腰를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증상”처럼 腎病證의 일반적 분류 기준에 부합돼 腎病證으로 쉽게 이해되는 증상도 있고, “腎風病으로 얼굴이 부어 오르고 말하기가 힘든 증상”처럼 언뜻 봐서는 腎病證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증상도 있다. 또 “腎熱病으로 턱이 먼저 붉어지는 증상”처럼 단일 증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고 “腎熱病으로 먼저 허리가 아프고 정강이가 시큰거리며 갈증에 시달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몸에 열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목이 아프면서 뻣뻣해지고, 정강이가 차고 시큰거리고, 발바닥 아래가 열나고 말도 하기 싫어하고, 그 氣가 逆하여 목이 아프고 머리가 빙빙 돌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증상”처럼 여러 증상이 모여 하나의 病證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病證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나는 傷寒 5일째의 증상”이나

夏晏晡.”

168)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70.

“著至教論篇 第七十五” 腎且絕, 惋惋日暮, 從容不出, 人事不殷.”

169)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481.

“方盛衰論篇 第八十” 腎氣虛則使人夢見舟船溺人, 得其時則夢伏水中, 若有畏恐.”

163)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5.

“脈解篇 第四十九 內奪而厥, 則爲瘖俳, 此腎虛也.”

164)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7.

“脈解篇 第四十九 少陰所謂腰痛 ~ 嘔欬上氣喘 ~ 色色不能久立, 久坐起則目眩無所見 ~ 少氣善怒 ~ 恐如人將捕之 ~ 惡聞食臭 ~ 面黑與地色 ~ 欬則有血.”

165)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279.

“刺要論篇 第五十 腎動則冬病脹腰痛.”

166)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13.

“水熱穴論篇 第六十一 勇而勞甚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臟府, 外不得越於皮膚, 客於支府, 行於皮裏, 傳爲附腫, 本之於腎, 名曰風水.”

167)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인문화사. 서울. 2009. p.339.

“標本病傳論篇 第六十五 腎病少腹腰痛, 筋痠, 三日背筋痛, 小便閉, 三日腹脹, 三日兩脇支痛, 三日不已死. 冬大晨,

“水가 火를 이기지 못하면 骨이 마르고 髓가 虛해져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骨痿의 증상” 등의 몇몇 증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용문 안에 ‘腎’, ‘少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인용된 病證이 腎病證과 연관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腎病證과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는 ‘腎’, ‘少陰’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원문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단어를 포함시켜 인용하지 못했을 뿐으로 실제 원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관련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펴본 40개의 病證은 『黃帝內經 素問』에 근거한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腎病證으로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Ⅲ. 結 論

『黃帝內經 素問』에서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肝病證, 心病證, 脾病證, 肺病證, 腎病證을 선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脈要精微論篇」의 “肝氣가 盛하여 분노하는 꿈을 꾸는 증상”, 「刺熱篇」의 “肝熱病으로 소변이 먼저 누렇게, 腹痛이 있고, 자꾸 누우려 하며 몸에 熱이 나는 증상” 등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肝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25個篇에서 43개를 선별하였다.

2. 「經脈別論篇」의 “놀라서 精이 소모되어 心의 이상으로 汗出하는 증상”, 「經脈別論篇」의 “心의 熱病으로 얼굴 중의 이마가 먼저 붉어지는 증상” 등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心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16個篇에서 21개를 선별하였다.

3. 「痿論篇」의 “脾熱로 胃가 건조해져 갈증이 나고 肌肉을 자양하지 못해 마비되어 늘어지는 肉痿의 증상”, 「痿論篇」의 “脾熱로 얼굴색이 누렇게 肌肉이 떨리는 증상” 등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脾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19個篇에서 25개를 선별하였다.

4. 「脈要精微論篇」의 “肺氣가 盛하여 우는 꿈을 꾸는 증상”, 「經脈別論篇」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

음 때문에 肺에 이상이 생겨서 喘이 나오는 증상” 등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肺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20個篇에서 28개를 선별하였다.

5. 「痿論篇」의 “腎熱로 요척부를 펴거나 구부리지 못하고 골수가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骨痿의 증상”, 「痿論篇」의 “복부가 쉽게 창만하고, 일어나서 못해 꼬리뼈로 발을 대신해야 하고, 허리가 구부러져 척추가 머리보다 높아져 있는 腎痺의 증상” 등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이 가능한 腎病證으로 『黃帝內經 素問』의 24個篇에서 40개를 선별하였다.

感謝의 말씀

본 논문의 자료 수집 작업을 도와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교민, 심소현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參考文獻

<논문>

1. 임교민, 백진웅. 『靈樞 九鍼十二原篇』을 중심으로 한 太極鍼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2). 2012. pp.25-38.
2. 모한영, 임교민, 백진웅. 太極鍼法の 확장형인 五臟原穴鍼法の 적용증 연구(『黃帝內經 靈樞』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5(4). 2012. pp.123-147.

<단행본>

1. 진주표 편주. 임상활용 황제내경독송본. 법민문화사. 서울. 2009. p.5, 36, 43, 66, 84, 86, 101, 106, 109, 110, 127, 128, 143, 146, 192, 196, 197, 201, 206, 216, 217, 219, 220, 223, 224, 227, 233, 243, 246, 247, 251, 252, 253, 259, 260, 262, 266,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7, 278, 279, 313, 334, 339, 442, 445, 447, 450, 470, 481.